Entertainment p/17

대세 엑소 中대륙도 점령

metro

Life p/14

심장 뛰는 곰인형과 '허그'

국가보조금 보는 사람이 임자

NEWS p/02

모바일 결제피해 66% 미성년

ECONOMY p/08

대인배 연아 "200점은 기본" p/21

티아라 "응답하라 1997"

메트로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홍명보 "알제리전 승부수"

고수익 미끼 '사기' 서민 '피눈물'

금융권의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 터진 동양증권 사태, 국민은행 관련 의혹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곪다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금융 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지난해 LIG 이어 올해 동양그룹 5만명 1조5000억 피해
최근 우리은행도 도마에… "당국 사후약방문 탓" 지적

집중진단 수술대 오른 금융

[글 싣는 순서]
1.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2. 국민은행 리딩뱅크 추락하나
3.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

금융공학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금융 산업의 상품 구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 상품에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원금까지 다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금융 상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화근이 됐다.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9000여 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한 명당 평균 3180만원을 투자해 고스란히 손실을 낸 위기에 처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부도 상태에 직면한 LIG그룹은 기업어음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가 8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 혐의로 소송이 걸려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다.

1년 넘는 소송 끝에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투자 보상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 부자는 법원으로부터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함께 분식회계, 신용등급 조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특정 금전신탁 상품이 '제2의 동양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우리은행은 개인투자자 1400여 명에게 특금 1900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부당 영업 행위를 했다. 그러나 사업의 인허가 비리로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의 3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 금융 당국은 '사후약방문'식 의 미진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해 2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 검사에서 투자자들의 소송 우려까지 포착됐는데도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와이시티로 문제시된 우리은행의 신탁 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 금감원이 밥 뺏은 대처를 할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특별 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은행 전반에 대해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성에 금융 당국은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긴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 금융사만 보관해오던 투자권유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개인투자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방공구역 62년 만에 재설정 8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확대안 공식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공산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택시 에어백 설치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길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1차 위반 시 30일,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60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적발되는 때는 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의 경우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또 터미널사업자는 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법령 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은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 시간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국가보조금 보는 사람이 임자?

1700억원 부당수급 유용한 3349명 적발 127명 구속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17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거나 유용한 33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보건 복지 고용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를 펼쳐 3349명을 입건했다. 1700억원가량 부정수급액 중 복지분야 비리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이들 중 32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리 혐의가 심한 127명은 구속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 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국가보조금 지원 명목이 수백 개에 이르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며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휴일 열린 예결위 휴일 뺏긴 공무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라도·홍도·이어도 포함

정부, 62년 만에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일 과도한 조치 아니라는데 공감"

우리 정부가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며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KADIZ의 조정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이다.

정부는 동·서해 KADIZ는 그대로 두고 거제도 남쪽과 제주도 남쪽의 KADIZ를 인근 FIR와 일치시키는 형태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 질서 및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 기간을 둬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속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 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며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혀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예쁜 '고사리손' 8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넣은 뒤 구세군과 손바닥을 마주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 3선 도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8일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002~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장을 역임한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천을 발전시켜 인천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전쟁보다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전 시장은 "현재 인천시 부채가 13조여원에 이른다"며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 행정·기업의 비즈니스와 국제적 감각이 있는 리더십을 가진다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재도 과학수사"

안전보건공단이 5일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재해 원인 규명 및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산업 현장의 화재, 폭발, 누출·붕괴 등의 사고로 1846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재해자가 63명이 증가하고, 이 중 사망자는 5명이 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 현장 화재, 폭발, 누출·붕괴 등의 중대 산업사고에 대해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약을 포함, 국내 재해 예방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도 법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수 노력 등을 통해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다혜기자

安 "지방선거 최선 다해 참여"

새정치 추진위 위원장 박호군 전장관 등 선임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김효석·이계안 전 의원 등을 선임했다.

박 전 장관은 1999~200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거쳐 2003년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과학자다. 2004~2008년 인천대 총장, 2008~2010년 인천녹색성장포럼 대표를 거쳐 지난해부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장현 이사장은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지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새정치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출신인 김효석 전 의원은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업인 출신의 이계안 전 의원은 사단법인 2.1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 신당'의 전남지사와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훌륭한 인재를 공개적으로 모시겠다. 필요하다면 삼고초려도 하겠다"며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신당 창당을 위한 인재 영입 의지를 밝혔다. /이선은기자

논술, 어쩌라는 겁니까?

Issue&View
교육부 '갈지자 행보' 언급

/윤다예 기자 yd@metroseoul.co.kr

대학 입시 폐지·축소한다더니 내년부터 고교 정규과목화

논술과 관련된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에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심사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상위 40개 대학에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자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의 연장선으로 논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 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학들도 이에 발맞춰 서울대가 2015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키로 결정하고, 경희대와 동국대 등도 논술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대학 논술 폐지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고교 논술 정규과목화' 정책을 발표해 교육 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장상, 비판적 글쓰기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논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교 일선에서는 이번 논술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보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교 교사는 "논술 과목을 가르칠 인적자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혼란만 가중시켰다.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논술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동 진학사 소장도 "과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논술을 준비했지만 2015학년도부터 대학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되고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축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술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현실이 너무 대학 입시 위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투스 관계자는 "논술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넓은 의미로는 긍정적"이라며 "교육과정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대학 입시와 연관 짓는 게 잘못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번호표 등장한 대입박람회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정시모집 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한 부스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돈으로 꿈을 접지 마세요' 최우수상

국가장학금 PR공모전 열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이 지난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대강당에서 국가장학금 PR공모전을 개최했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홍보 관련 학과 또는 동아리 대학생들 170여 개 팀이 참여했다. 이중 경희대·광운대·성균관대·숙명여대·영남대·울산과학기술대·이화여대 팀 등 16개 팀이 예선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바로 알리기를 주제로 기획서 부문에서는 공주대학교 '가면 쓴 사람들'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성균관대 '엘리더스' 팀과 경기대 '청국장'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인쇄광고 부문은 숙명여대 드림걸스(왼쪽 사진) 팀이 최우수상을 울산과학기술대 'UNIST'(가운데) 팀과 우송대 '케고브다'(오른쪽) 팀이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에서 국가장학금의 직접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의 참신한 홍보 전략과 광고안 발표가 이뤄졌다"면서 "제안된 의견들은 향후 국가장학금의 홍보 시 대학생과의 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광고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다예 기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응답하라, 청년꿈짱' 이벤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내년에 보다 효과적이고 완전 취업서비스로서 새롭게 다가가고자 '응답하라 청년꿈짱' 이벤트를 마련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선 10~24일 센터를 대표하는 로고 및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센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seouljob)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고, 당첨자 각 1인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담은 성공취업 삼행시 짓기도 함께 실시한다. 응모자 중 당첨자 50명에게는 성공 멘토와의 만남인 꿈짱 콘서트에 초대된다.

문의: 02)2133-5507

경희사이버대 입학상담 행사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해 10·23일, 내년 1월 3일 세 차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관 1층 네오누리에서 '입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

1학기 연시 일정 및 지원 전반에 대한 안내는 물론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인성검사 맛보기 체험 스튜디오 및 학교 탐방 등이 진행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노동자 대통령에 당선

1990년 12월 9일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바웬사는 1980년 8월 식료품값 인상으로 시작된 파업 당시에 자연히 그다니스크 레닌조선소에 들어가 그곳의 노동조합을 이끌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 승리를 쟁취했다. 그 결과로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않는 자유노조가 탄생된 것이다. 또 1983년엔 노동자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기 총선 동의하면 사퇴"

잉락 태국 총리 '승부수'

잉락 친나왓(사진) 태국 총리가 모든 정당이 조기 총선에 동의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락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정당이 조기 총선에 동의하면 자신이 사퇴하고 의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잉락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잉락 총리는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정계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탁신 전 총리가 정치를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가족은 탁신을 위해 권력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수텝 전 부총리는 "잉락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시위 지도부가 정부 전복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수하겠다"며 "9일 현 정권을 무너뜨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 100만 명이 거리에 나오길 희망한다"며 결전의 의지를 내비쳤다. /조선미기자

美 '3대 대통령' 남아공행

오바마·부시·클린턴, 만델라 영결식 참석 결정 - 11일부터 시신 일반공개

지구촌이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추모 열기로 뜨겁다. 5일(현지시간)까지 남아공 현지에서 계속되는 추모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세계 주요 정상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8일 미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는 10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공식 영결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남아공으로 향한다.

"편히 쉬세요, 마디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선튼 지역의 넬슨 만델라 광장에 7일(현지시간) 만델라의 조상(彫像)과 꽃다발, 촛불이 놓여 있다. /AP 연합뉴스

만델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예계 스타들도 남아공을 찾는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록그룹 U2의 보컬 보노가 남아공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의 일반인도 '정의로운 거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남아공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콜린스 차베네 남아공 대통령실 장관은 "10일 요하네스버그 FNB경기장에 대규모 추모객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파가 경기장 전체 수용 인원인 9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만델라의 추모 행사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과 비교했다. 2005년 교황의 장례식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 70여 명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이 참석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가족은 세계 곳곳에서 쏟아진 위로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만델라 가족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가족의 기둥은 27년간 감옥에 갇혀 떨어져 있을 때처럼 떠나갔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13일 만델라의 시신은 수도 프리토리아의 정부 청사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18년 전 빼앗은 딸 돌려달라"

metro HongKong

"18년 전 빼앗아간 우리 아이 행방 알려주세요."

최근 중국 허베이성 가오베이뎬시 법원에서 초과 출산한 아이를 빼앗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18년 전 안신(安新)현 농민 류라오전과 사핑거 부부가 셋째 딸을 낳은 지 11일 만에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위반했다며 아이를 데려갔고, 부부는 지금까지 아이의 행방을 모른다.

2005년 안신현 검찰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이듬해 사건을 철회했다.

올해 10월 중순 부부는 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안신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현(縣) 정부가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 빼앗긴 딸의 행방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소아마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핑거는 법정 진술에서 "우리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리=조선미기자

"로크 대사 사임은 건강탓"

게리 로크(63, 사진) 중국 주재 미국대사의 사임 이유가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대만 언론이 8일 전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 로크 대사가 다음달 미국으로 돌아가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로크 대사는 몇 달 전 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크 대사는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놓고 지난달 20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이에 주의정사설, 차기 대선 출마설, 중국 당국과의 갈등설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수술 얘기는 들은 바 없으며, 그가 사임한 것은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中 화웨이 장비 보안문제 없다"

이상철 LGU+ 부회장 "도입땐 삼성 박수칠 일"

"화웨이가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삼성이 중국에 나가기가 쉬워졌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데 대해 삼성은 뒤에서 박수쳐야 한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통신장비를 채택하면서 불거진 보안 문제 등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는 사실 다 끝난 문제인데 미국 상원의원이 얘기하면서 논란이 됐다"며 "정치나 외교적인 문제라면 잘 알지 못하지만 보안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 장비가 이미 7~8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들어와 있고, KT나 SK텔레콤도 화웨이 유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LG유플러스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보안 문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어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보안과 관련된 인증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받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인증 기관을 통한 화웨이 장비 보안 인증 취득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지국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도입을 채택한 것이 LG디스플레이·LG화학에서 부품을 화웨이에 팔려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화웨이를 택한 것은 아니다"며 "(화웨이를) 선택한 것은 올해 소형 기지국인 리모트라디오헤드(RRH)를 100만 대나 판매하는 등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선 데 있다. 장비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부분은 최고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웨이는 LG유플러스 및 국내 공인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장비의 소프트웨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는 국제 보안 인증기관 실험실 환경에서 장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 소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롯데마트 방어회가 9900원 8일 롯데마트 화양점에서 모델들이 경남 통영산 방어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0일까지 방어회(240g) 1팩을 시세보다 30% 저렴한 9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요일제특약 가입땐 車 보험료 8.7% ↓

천순이 주부 경제학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가운데 보험료 역시 만만치 않다. 보험료 등 이것저것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매달 꼬박꼬박 잘도 나가는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주행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선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로 길지 않다면 주행거리 연동특약으로 보험료를 최대 13%까지 저렴하게 낼 수 있다.

'주행거리 연동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두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좋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부부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하는 경우보다 보험료를 약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블랙박스도 보험료 절약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블랙박스만 장착해도 전체 보험료의 3~5%나 할인받는다. 보험회사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3~5% 정도 깎아준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가량 할인이 된다. '조심 운전'은 본인의 안전과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민아기자 minay@

국내 유턴기업 지방소득세 5년간 면제

정부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가 해외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보조금 지원 확대, 인력·입지·연구개발(R&D) 분야 지원 및 해외 청산 등 유자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국내 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기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 융자 한도를 현재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공동R&D센터 설립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R&D 지원 체계를 구축해 유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원한다. 집단유턴의 경우 기존 산단을 활용한 신규 부지 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 유턴은 수요 맞춤형 부지 제공 등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줄 계획이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리나기자

로또복권 제57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9	20	30	33	34	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39,267,17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345,178
3등	5개 숫자 일치	1,522,042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표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주택시장 회복모드 건설주 상승은 일러”

금융가 사람들

■한화투자증권 조동필 연구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부터 주택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최근 몇 년간 내리막길을 걸은 건설업종 주가도 반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회복이 건설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사진)은 지난 6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복이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철저히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이상 2006~2007년과 같은 폭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분양 물량을 확대해 건설사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시장이 회복될 경우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미분양 등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부실을 덜 수 있고, 이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시장이 아닌 해외나 신사업으로 성장 동력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올해 일부 업체가 해외에서 얻은 부실로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최근 시장·공종 등이 다변화되고 있어 또다시 이런 일이 재연될 가능성은 짙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연구원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건설사들도 내실 있는 사업장을 선별 수주하는 안목이 생겼다"며 "해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내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면, 그 이후에 주택 시장 회복과 맞물려 중견 건설사의 주식시장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rps1920@metroseoul.co.kr

척추건강 이색패션쇼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길동 달리라벤칭에서 열린 관절이 패션쇼에서 척추관절 환자 척추관절 건강을 회복한 고객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채=자본 3배’ 재무불량 상장사 300곳

금융위기 이후 최고…“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재무 상태가 부실한 상장사 300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280%에 육박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501개 비금융 상장사 중 부채비율 최상위 300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279.2%로 1년 전보다 3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6월 말의 259.3%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총 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위험함을 뜻한다.

이들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역시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 차상위 300개사의 평균 부채비율도 올해 6월 말 127.4%로 2009년 6월 말의 129.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9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는 기업의 이자 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에서 한층 두드러졌다.

1501개 비금융 상장사 전체의 이자보상비율은 2009년 상반기 292.8%까지 추락했다가 올해 상반기 425.8%로 회복됐다.

그러나 삼성전자·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LG화학 등 상위 5개사를 빼면 265.1%에서 245.0%로 오히려 낮아진다.

또 이자보상비율이 100%에도 미치지 못해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좀비 상태'에 가까운 기업의 비중은 2010년 상반기 32.0%에서 올해 상반기 37.9%로 커졌다.

최석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재무구조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며 "취약 업종의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yun1@

잠실 20분대…남양주 ‘화도 효성해링턴’

3.3㎡당 700만원대

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이 연내 종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4지구에 공급 중인 '화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눈길을 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체 635가구로 이뤄졌으며 전 세대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지구 내 초등학교 2곳이 신설되고, 마트와 병원, 학원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를 이용해 강동권 15분대, 잠실권 2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복선전철역 마석역을 통해서도 서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선착순 발코니 확장비 특별 조건 등이 적용된다.

경춘선 평내호평역 맞은편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2015년 6월 입주 예정. 문의 1588-7046

/박선옥기자

미성년 모바일게임 결제피해 급증

올 10월까지 300건 달해
66% 자지… 평균 30만원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의 아이템을 사기 위해 고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230만원, 평균 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과 관련한 피해 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얻은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다.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백성은기자 zon@

SK플래닛 '스타일태그' 뉴욕 론칭쇼 열려

SK플래닛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5번가에 위치한 패션 명품 백화점 '헨리 벤델(Henri Bendel)'에서 '스타일태그'의 미국 론칭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타일태그는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 전문 매거진, 파워블로거 등 수많은 패셔니스타들의 다양한 사진 및 동영상들을 수집,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다.

사용자의 패션에 대한 기호나 관심사를 직접 반영하고 있는 키워드로 원하는 이미지에 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쉽고 간편하게 저장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뉴욕 론칭 행사에는 서진우 SK플래닛 사장을 비롯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패션 블로거들과 니콜 리치(Nicole Richie) 등 연예계 패션 관계자는 물론 디자이너, 모델, 패션 전문지, 디자인스쿨 등 뉴욕의 다양한 패션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VIP로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재영기자 ljy@metroseoul

KT '유클라우드 TV 앨범' 이벤트 이달말까지 진행

KT는 31일까지 'TV앨범 매일 출석하고! 매일 선물받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유클라우드 TV앨범 이벤트 페이지 출석만으로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 'WB 150F'를 매일 2대 증정하며, 이벤트 기간 중 20일 이상 출석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디지털 카메라 'MV 900' 5대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에서 TV앨범을 설명한 웹툰을 본 후 애플 맥북에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동화책 전집 중 원하는 선물을 선택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해당 선물을 증정한다. /이재영기자

추억의 레고 장난감 접목 아이폰… 복고 디자인 적용한 클래식 오디오…

IT, 아날로그와 통하다

IT업계에 '디지로그'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난 디지털 서비스·제품을 일컫는다. 특히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등의 복고 열풍과 성탄절 시즌에 힘입어 디지로그 신제품 출시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다국적 IT 액세서리 기업 벨킨은 레고 장난감을 접목한 아이폰 아이패드 케이스(사진 오른쪽)를 지난 5월 국내 출시했다. 덴마크 레고 기업과 첫 정식 제휴한 이 제품은 케이스 양면을 레고 판으로 만들어 실제 레고 블록을 끼워 장난감처럼 즐길 수 있게 디자인됐다. 미국에서는 성인들의 추억 속 레고 놀이를 떠올리게 하는 IT 아이템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 LG전자는 클래식 범 클래식 오디오 등 '레트로(retro·복고)' 디자인을 적용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즉석사진 인화 카메라는 대표적인 디지로그 시장이다. 디지털 카메라 보편화로 필름 카메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즉석카메라는 아날로그 특유의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진화를 거듭 중이다. 한국후지필름은 최근 '인스탁스 미니90'(왼쪽)을 출시하는 등 30여 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 관계자는 "인스탁스의 세계시장 평균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약 33%로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 30%와 비슷하다"면서 "앙증맞은 색상과 가죽 질감, 판매 채널을 서점과 음반 매장 등으로 넓혀 디지털 카메라에 없는 '감성 강조'가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다. /황준희기자 un.que@metroseoul.co.kr

청정 가습 제균 한번에 6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LG베스트샵 동교점을 찾은 고객들이 LG 가습공기청정기 등 에어솔루션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출발선부터 금융업 바른 이해를"

신한금융 신입사원 연수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그룹 신입직원들에게 "출발선에서부터 금융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라"고 당부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각 그룹사별로 채용한 신입사원 24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공동 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한 회장은 연수 마지막 날인 6일에 연수원에 방문해 그룹 새내기들에게 인생과 직장의 선배로서 바라는 바를 전했다.

한 회장은 이번 특강에서 "최근 소비자 보호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확실한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신한이 내세우는 '따뜻한 금융'의 의미는 '본업인 금융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라면서 신입사원들에게 전할 당부 사항으로 ▲자신의 선택을 믿고 끈질기게 노력하며 ▲묵묵히 맡은 일에 전념하며 실력을 기워달라 ▲인생에서 만난 상대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조언했다.

특강을 마친 한 회장은 신입직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명함지갑을 선물했다. /김현정기자 hjk.m@

"삼성 170억원 물어내라"

애플 특허권 분쟁 소송비용 청구소송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1600만 달러(한화 약 170억원)를 물어내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에 삼성전자와 특허권 분쟁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변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애플이 청구한 비용은 특허권 소송에서 발생한 자사 변호사 수임료 1570만 달러 등이다.

애플은 이번 청구 비용이 앞서 지출됐거나 향후 사용될 소송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변호사 선임에만 6000만 달러(한화 약 635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과 애플 특허권 전쟁의 최대 승리자는 수임료 돈방석에 오른 변호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법원 심리는 내년 1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현지 네티즌들은 "삼성과 애플은 소송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소송을 벌일 것" "법원 뜻대로 하소서"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선희기자

한-중 ICT 협력 전략대화

한국과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상방 중국 공업신식화부 차관과 제1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주요 ICT 정책 및 현황 ▲차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보안 및 정보 보호 ▲네트워크 주소 자원 관리 ▲전자정보·소프트웨어 분야 의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중 양국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관련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신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관절질환 및 인대질환 5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평소 손목 발목 및 무릎 인대 질환으로 고생하던 유명 남자 영화배우 C씨는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질환이 자주 재발돼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할 상태에 이르렀다. C씨는 수술이 두렵고 부담감도 있어 고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 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병원장은 C씨를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연대 염좌로 진단하고 강남초이스병원에서만 시행하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 치료 주사를 병행해 투여했고 염증이 심한 인대와 신경을 치료했다. 치료를 받은 C씨의 상태도 호전됐다.

3년 전부터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됐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의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C씨는 주사치료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 도수운동 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와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치료를 마친 C씨는 현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척추관절 치료 병원으로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이처럼 1명의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와 질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 후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환자 1명을 전담하는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통해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해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운영 중이다. 조성태 병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명예와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해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2)875-2200 /황재용기자

Car~ 스타일·연비·정숙 3박자 갖췄네

임의택의 차차차

■ 르노삼성 QM3

6월 국내 언론에 공개된 QM3는 르노삼성이 오랜만에 내놓은 신차다.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경기도 동탄시를 오가는 시승회에서 많은 기자들은 이 차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시승에서 기자는 연비 테스트가 이뤄지는 서울~동탄 구간을 맡았다. 1.5ℓ 디젤 엔진을 얹은 QM3는 최고 출력 90마력, 최대 토크 22.4㎏·m를 나타낸다. QM3와 비교적 유사한 콘셉트의 현대 i30 1.6 디젤은 최고 출력 128마력, 최대 토크 26.5㎏·m의 성능을 지녔다. 또 다른 경쟁자인 폭스바겐 골프 1.6은 105마력, 25.5㎏·m를 나타낸다.

이러한 제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 주행에서 보여주는 가속감과 연비, 정숙성이다. QM3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놀라운 정숙성이다. 앞서 언급한 i30나 골프에 비해 조용하고, 특히 공회전 때 스티어링 휠에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다. 미리 말을 하지 않는다면 가솔린차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이 차에 장착된 독일 게트락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은 SM5 TCE에서 궁합을 이뤄 이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수동변속기를 기본으로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더한 DCT는 변속의 부드러움이 돋보인다. 폭스바겐 골프의 DSG는 저속에서 약간의 울컥거림이 느껴지는 반면에 QM3는 자동변속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끄럽다.

이런 감각은 좋은 연비를 내는 데도 유리하다. 이날 기자가 기록한 연비는 28.0㎞/ℓ로, QM3의 복합 연비 18.5㎞/ℓ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연비 20.6㎞/ℓ를 훌쩍 뛰어넘었다. 29.9㎞/ℓ에서 더 이상 연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1위 참가자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었다. 또한 기자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1위를 기록했던 26.5㎞/ℓ보다도 좋은 연비다.

서울로 복귀하는 구간에서는 승차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앞 스트럿, 뒤 토션빔 타입을 적용한 서스펜션은 중형급의 안락함이 돋보였다. 205/55R17 사이즈의 타이어는 금호 제품으로, 회전저항 4등급이다. 회전저항이 좀 더 좋은 타이어였다면 연비가 더 좋게 나왔을 것이다.

QM3의 가격은 SE 2250만원, LE 2350만원, RE 2450만원으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특히 최고급 모델인 RE는 오렌지 컬러 루프나 로장주 패턴이 적용된 풀옵션 모델이다. 반면 현대 i30 나샬 모델의 최고급형은 2330만원인데, 여기에 컴포트 패키지(60만원), 컨비니언스 패키지(55만원), 멀티미디어 패키지(90만원), 파노라마 선루프(85만원), 하이패스 시스템(25만원)은 별도 선택하도록 했다. 이를 모두 고르면 가격은 2645만원이 된다.

QM3의 매력은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연비, 동급 최고의 정숙성으로 요약된다. 4가지의 독특한 인테리어 컬러와 활용도 높은 뒷좌석 슬라이딩 시트, 서랍식의 매직 드로어 글로브 박스, 탈착식 시트커버도 QM3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다.

QM3는 르노의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어져 수입된다. 그렇다면 이 차는 국산차일까, 수입차일까?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인 박동훈 부사장은 "수입된 차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는 순간부터는 르노삼성이 판매하는 국산차로 봐달라"고 했다. 수입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은 서비스센터에다 QM5 대비 85% 수준으로 책정된 부품 가격 등으로 국산차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연 초기 물량 1000대가 7분 만에 완판된 QM3는 르노삼성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년 3월 본격 판매에 들어가기 전 이탈 고객을 막는 것이 르노삼성에 주어진 과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4가지 독특한 인테리어… 부드러운 변속감
공회전때 진동 거의 없어… ℓ당 28㎞ 달려

르노삼성 QM3 한 줄 평가
개성 있는 스타일, 뛰어난 연비가 돋보인다. 대기 물량 해소가 관건이다.
평점 ★★★★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벤츠 뉴 S클래스 판매 3일동안 무려 300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1월 27일 국내 출시한 플래그십 모델 뉴 S클래스가 3일 동안 300대(KAIDA, 11월 신규 등록 대수 기준)나 판매되며 럭셔리 세그먼트의 리더임을 입증했다.

8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되어 새롭게 선보인 뉴 S클래스는 11월 4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해 출시일에 이미 3000여 대를 기록했으며, 11월27일 공식 출시 후 29일까지 3일 동안 300대가 판매됐다.

이는 올 들어 대형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은 월별 판매량이다.

뉴 S클래스는 지난 7월 글로벌 시장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3만대 이상 계약됐고, 11월 말 기준으로 1만4000명의 고객이 뉴 S클래스를 인도받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보이고 있다.

<럭셔리 대형 세단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제네시스	2,360	2,550	3,080	3,580	4,230
	에쿠스	3,500	3,820	4,400	5,270	8,310
기아	오피러스	1,870	1,950	2,160	2,250	
	K9	-	-	-	4,520	4,710
쌍용	뉴 체어맨			3,630	4,440	5,360
벤츠	뉴S-클래스	6,300	6,930	8,500	9,670	-
	뉴E-클래스	3,700	3,950	4,360	5,000	5,540
BMW	뉴7시리즈	5,450	6,350	7,230	8,450	9,420
	뉴5시리즈	-	3,810	4,180	4,710	5,290
아우디	뉴A6	-	-	4,050	4,880	5,500
렉서스	LS	3,670	5,180	5,96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토스카·티구안·골프 등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GM, BMW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의 토스카 2.0 LPG(1만4261대)는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의 전기배선 단선 또는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 작동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대상차량 확인 후 베이퍼라이저 압력센서 배선 정비 또는 개선된 아이들 에어 컨트롤 밸브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티구안 2.0 TSI 3571대는 전조등 퓨즈가 단선되어 전조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및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한 골프 1.4 TSI 등 5차종 1985대에서는 변속기 오일에 생성되는 침전물로 인해 변속기 내의 퓨즈가 단선되어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퓨즈 또는 변속기 오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BMW 코리아의 이륜자동차 'BMW K 1600 GT', 'BMW K 1600 GTL' 165대에서는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BMW 코리아 이륜자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며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쉐보레 유럽시장서 철수

제너럴 모터스(GM)가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키로 했다.

GM은 "2016년부터 유럽지역 대중차 시장에서 오펠과 복스홀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쉐보레 브랜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 구조와 유럽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서유럽 및 동유럽 시장에서 더 이상 GM의 주력 브랜드로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쉐보레는 콜벳과 같은 모델들은 서유럽 및 동유럽 시장에 계속 공급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와 CIS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극한적인 정쟁으로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던 국회가 모처럼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여야 간의 정쟁만 대립에서 고작 얻어낸 것은 국가정보원 개혁 합의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대선 관련 특검은 뒤로 미루고 우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시켜 예산안을 비롯해 그동안 미뤘던 민생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씁쓸할 따름이다. 19대 국회 출범 당시만 해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 제일주의' '민생 제일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은 정치 혐오증만 키웠을 뿐이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질타마저 터져나왔다. 여기에 더해 의원들의 세비 삭감은 물론 세비 액수 자체를 국민이 정해줘야 한다는 여론마저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거의 모두 방치된 상태다. 오히려 법안 처리 기회를 놓쳐 반작용이 생길 정도다. 부동산 거래에 커다란 혼선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경우에 따라 기업의 목을 조일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새해 예산안만 해도 심도 있는 심의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국회의원은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10%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는 대다수 의원은 마이동풍이다.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막상 당선만 되면 유아독존의 자세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다. 마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만과 독선에 차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그렇게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성의 수준을 넘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도 모자람이 없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열강들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북한의 동향도 매우 심상치 않다. 따라서 정치권은 보다 성숙된 자세로 국력을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정쟁만 벌일 것인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포토프리즘 | 중국발 미세먼지에 '서울 시계제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서울의 거리는 황사용 마스크 없이는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다. 서울시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일 서민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길을 재촉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그늘 만드는 기부

뉴스룸에서
정 영 일
<생활경제부 차장>

연말연시만 되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기부(寄附)'다. 사전적 의미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영어에서도 이 같은 나눔과 베풂을 '기브(Give)'라고 표현한다.

과거에 '기부'란 단순하게 '현금과 현물 위주의 나눔'에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눠 다른 이의 삶을 이롭게 하는 재능기부를 비롯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사용, 소비자와 회사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모으면 회사 차원에서 그 금액을 추가해 지원하는 '매칭펀드'형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 과연 우리 기업들은 기부 활동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

지난 10월 말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의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기부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381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총 기부금은 1조8136억원으로 5년 전인 2008년 1조8385억원에 비해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이들 기업의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 이로 인해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생색내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500대 기업의 기부금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일부 기업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인색하다는 지탄을 받았다.

이러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 달 후인 11월 말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에서 이전의 비영리 민간단체(NPO),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원 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을 조사하니 기부 형태가 62.5%, 직접 사업 형태는 37.5%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소외된 곳은 대기업 등의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와 기관들이다.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 등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나온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공자사(功自私)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고르게 환원해 그늘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길 기대해본다.

라틴어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베니 비디 비치(Veni, vidi vici)."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 승자가 되면서 남긴 유명한 발언이다. "왔다, 보았다, 이겼노라."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지중해 세계는 이른바 '로마의 평화'라는 질서가 지배한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이것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이어진다.

자아를 가리키는 '에고(Ego)'도 라틴어고, 이 과정에서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후마니타스(humanitas)'가 조명을 받으면서 '인문학(humanities)'이 발전한다.

유럽이 프랑스, 독일 등 국민국가로 나뉘어 발전하게 되는 시기 전까지는 라틴어가 무려 2000년간이나 공통 언어의 문자로 군림했다. 라틴어를 모르면 유럽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1차대전을 전후로 하는 시기까지 유럽의 교육에서 라틴어는 우리의 한자처럼 필수 과목이었으나 로마제국은 5세기쯤 역사에서 사라졌어도 라틴어의 생명력은 끈질기고 막강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라틴어는 여기저기 출몰한다. '후마니타스'는 이미 언거 단어 목록에 들어있고 자동차 이름인 '아반테(Avante)'나 '소나타(Sonata)', 외제차 '인피니티(Infiniti)'도 뜻도 잘 모르는 채 익숙해졌다.

서기를 뜻하는 AD도 'Anno Domini'라고 해서 '주의 해'라는 뜻인데,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아무 저항감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국이 됐다. 프랑스어지만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배계급의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될 정도다.

공화국 또는 공화정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리퍼블릭(republic)'의 라틴어 어원은 '레스 퓨블리카(res publica)'로 공공성을 가진 일들이라는 뜻이다. 즉, 공적(public)인 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와 국가가 바로 공화정이다. 그러나 단어는 존재하지만 그 단어의 정신은 찾기 어렵다. 요즘 말로 '있어 보이는' 라틴어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 속에 담긴 역사나 철학 또는 의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혹시 만시에 이르지는 않을까? 깊이를 모색하는 문명에서만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사과같지 않은 사과

기자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지난주 '형광 비비'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한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클럽에 가기 전에 비비크림을 발랐는데 얼굴 전체가 형광으로 빛났다'는 글을 올리면서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업체는 "일반적인 형광물질과는 무관한 성분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고, 이미 형광 현상을 없앤 새 제품으로 리뉴얼해 판매하고 있다"는 해명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유는 업체 측의 무성의한 고객 응대에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형광물질과 관련해 업체에 항의 전화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형광물질에 대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안일한 고객 서비스에 성이 난 것이다. 한번 돌아서버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과문 하나로 돌릴 수 있을까 의문이다.

물건 팔기에 급급한 기업들의 경우 자칫 고객 서비스에 소홀하기 쉽다. 이 때문에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사후 관리에 있어서 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 창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탄탄한 제품력과 함께 신속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본 덕목이다. 고객 중심 서비스는 당장은 아니지만 새로운 수요로 돌아오게 돼 있다. 기업들이 매출 올리기에만 열 올리지 말고 고객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당신의 쓰린 속 달래드립니다

유통업계 연말맞이 숙취해소음료 지원 등 이벤트

야외 댄스뮤직 페스티벌 개최

싱가포르 관광청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클럽 주크에서 야외 댄스뮤직 페스티벌 '주크 아웃'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주크 아웃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올해는 네덜란드 트랜스 슈퍼스타 페리 코스텐과 자세더 DJ로 손꼽히는 대니 애틀라, 하우스 트랜스 장르의 유명 DJ이자 프로듀서인 셋 트록슬러 등이 참여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

1년 중 가장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유통업계의 연말 이벤트가 한창이다. 연말 하면 빠질 수 없는 술로 인한 숙취 걱정을 덜어주는 이벤트에서부터 회식비 지원, 대리운전비 지원 등 다양한 연말 모임 지원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들의 건전한 회식 문화를 지원하는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하는 상쾌한 송년회'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매주 화~금요일까지 4일에 거쳐 서울 주요 직장인 밀집지역인 여의도역, 광화문역, 강남역 등에서 마련된다. 출근 시간에는 숙취해소음료 '술깨는비밀' 을 증정하고, 본격적으로 회식이 시작되는 퇴근 시간에는 '술깨는비밀'과 '하이트제로0.00'을 비롯해 3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 등을 제공한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트제로0.00이 회식비를 쏜다' 2탄을 열고 있다. 17일까지 매주 회식팀을 선정해 20만원씩의 회식비를 지원한다.

송년회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도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달부터 대리운전비를 지원하는 '광동 힘찬하루 헛개차, 병뚜껑 대리운전비 지원'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구매한 광동 힘찬하루 헛개차 병뚜껑 안쪽에 1등·2등·3등 당첨 글자를 확인하고 당첨 글자가 있는 병뚜껑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1등 10명에게는 대리운전비 150만원, 2등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하고 3등 당첨자 3000명에게는 헛개차 1박스를 증정한다.

사진, 왼쪽부터 하이트진로음료의 술깨는비밀, 광동제약의 힘찬하루 헛개차,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연말 모임지원 이벤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오는 20일까지 연말 모임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겨울 한정 메뉴인 랍스테이크 커플 메뉴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패밀리 메뉴와 파티 메뉴를 각각 25%, 2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또 3명 이상 방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

/정영일기자 jymie@metroseoul.co.kr

설 특수를 잡아라

대형마트 예년보다 빨리 사전예약 판매 돌입

일부 유통업계가 불황 타계의 방안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설날 예약 판매 돌입'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어름 통해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체 대량 구매 소비자에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해 한 발 먼저 명절 특수 잡기에 나섰다. 다음 달 15일까지 전 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이는 작년 설날 사전 예약보다 22일이나 빠른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사전 예약 판매 조기 실시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겐 명절 분위기를 일으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기업체 등 대량 구매 소비자에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불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또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예약 판매 품목도 지난해 설 69개에서 한우, 복·굴비 등 신선식품 29종과 커피·햄·포도씨유 등 가공식품 50종, 샴푸·치약 등 일상 생활용품 24종 등 총 103개로 전년 대비 51%가량 늘렸다.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체 대량 구매 소비자에게 판매를 집중해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체 지갑 열기' 총력전도 펼치고 있다.

먼저 기업체 소비자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지난해 설에 사용 가능하던 4개 카드사 신용카드를 8개로 확대했다. 구매 혜택도 늘려 신용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동일 품목 5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롯데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롯데마트는 이번 설을 대비해 사상 처음으로 설 명절 대량 구매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점포 및 점포 총괄 부서, 본사 근무 인력 등 총 250여 명의 구성원들은 롯데마트와 거래가 있던 2만5000여 개 기업체를 타깃 고객으로 삼고 '개별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기업체가 원하는 선물 품목 및 혜택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신선·가공·생활용품 MD(상품기획자)를 태스크포스팀에 함께 배속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울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스타벅스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7일 오후 지난해 12월 재능기부를 통해 리뉴얼한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호점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소재 카페 이스턴 에서 제제징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후 이석구(왼쪽 앞)에서 첫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바리스타 50여 명이 복지관 관계자 및 솔타리 봉사회 어머니 등과 함께 6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서대문구 연희동 남가좌동 일대 독거노인 및 결손 가정에 전달하는 산타 바리스타 캠페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미세먼지 공포' 삼겹살 매출 3배↑

중금속 배출 촉진 등 이유 생수 판매도 크게 늘어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수 등 오염물질과 중금속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식품은 물론 관련 용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돈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150t이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겹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5%나 증가했으며, 목심 307%, 갈비 78%, 앞다릿살 10% 등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생수 매출도 전년보다 29% 뛰었다. 황사 마스크, 구강청정제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의 매출은 각각 344%와 32% 늘었다.

홈플러스 축산팀 강형석 바이어는 "돈육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호흡기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와 중금속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구매 고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하나투어리스트
하나 Free
항공+호텔에서 예약하면
놀라운 가격이 펼쳐진다!
자유여행 만들기
하나 Free 한번검색으로 항공과 호텔 뿐만 아니라
현지투어, 교통패스, 입장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예약하고 거기에
할인까지 플러스 +
항공
입장권
교통패스
호텔
현지투어
가격할인
원하는대로 선택
하나프리 '항공+호텔'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번의 검색으로 항공과 호텔 거기에 현지투어, 교통패스, 입장권까지 한 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일정에 맞는 상품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어요.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한 번에 구매하고 거기에 자동 가격 할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항공+호텔에서 추천하는 인기도시 TOP6의 놀라운 가격!
동경 이스타항공+선라이트신주쿠 호텔 3일 172,000부터
타이페이 티웨이항공+뉴컨티넨탈 호텔 3일 220,000부터
오사카 이스타항공+남바워싱턴 호텔 3일 155,000부터
푸켓 타이항공+힐튼 아카디아 리조트 엔 스파 5일 632,000부터
홍콩 제주항공+이비스 홍콩 센트럴&성완호텔 3일 370,000부터
라스베가스 아메리칸항공+플라밍고 호텔 6일 690,000부터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034
www.hanatourist.com

심장 뛰는 곰인형 안으면 가슴 '콩닥콩닥'

서울 4개 메리어트 호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하트베어 캠페인' – 12일엔 나눔 콘서트도

지난 1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 로비에는 수백 개의 하트베어로 장식된 4.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에 불이 켜졌다.

"하트베어를 품어안으니 두근두근 심장이 뛰네요. 심장박동에서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져요.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나눔으로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날 트리 설치에 참여한 JW메리어트 호텔 강소영 홍보실 팀장의 소감이다.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과 서울 소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소속의 4개 호텔(JW 메리어트 서울, 르네상스 서울 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이 '메리어트 하트베어와 사랑을 전하다' 캠페인을 통해 국내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각 호텔의 '윈터 패키지'와 '크리스마스 패키지'에 각 호텔의 로고가 새겨진 하트베어를 포함하고 후원금은 모두 하트하트재단에 기부된다. 호텔 내 델리나 프런트를 통해 후원에 참여하는 고객들은 금액에 따라 하트베어를 선물받게 된다.

◆후원 고객에게 하트베어 선물

오는 12일에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하트금관앙상블'과 이장금벨 앙상블 등을 미니 콘서트로 연주한다.

'나눔트리'는 연말 송년 나눔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제일모직, 김안과병원, 에이티넘파트너스 등 여러 기업의 임직원 참여로 나눔트리가 설치됐다. 두 번째로 나눔트리를 설치한 에이티넘파트너스의 정영숙 팀장은 "나눔트리로 더욱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올해도 참여했다"며 "곰인형이라는 친근한 아이템과 트리로 좀 더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연말 송년 나눔'은 나눔트리 외에도 하트베어를 통해 기업 및 단체가 나눔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하트하트재단을 통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안고 있으면 느껴지는 '심장 뛰는 하트베어'의 힘 있는 박동처럼 캠페인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아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재단 홍보대사 배우 소이현과 박하선뿐만 아니라 미쓰에이 수지가 자신의 트위터에 하트베어와 함께한 셀카로 후원 참여를 독려하고, 샤이니 최민호의 팬페이지 회원들이 하트베어를 통해 심장병 아동 수술비를 후원하는 등 셀러브리티들의 선행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특별 재단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심장 뛰는 하트베어'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많은 나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심장박동기가 왼쪽 가슴에 들어있어 품에 안으면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하트베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하트하트재단 나눔홍보부 손은경 총괄팀장은 "나눔 마스코트인 하트베어를 통해 나눔에 대해 쉽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 아동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나눔트리를 비롯한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연말 송년 나눔'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며, 재단 홈페이지(www.heart-heart.org)와 전화 문의(02-430-200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하트하트재단 홍보대사 박하선

서울 JW메리어트호텔 로비에 불을 밝힌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가 전해줄 양초·립밤

한국얀센 '러브산타데이'
임직원·가족 50여명 참가
장학생에게 줄 선물 제작

한국얀센이 지난 7일 본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 '얀센과 함께하는 러브산타데이'를 열고 폴 얀센 장학금 장학생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폴 얀센 장학금은 얀센의 창립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얀센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얀센은 부모 중 1명이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신적 교감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으로 폴 얀센 장학금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얀센은 장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멘토단의 일대일 멘토링, 임직원들의 북멘토링 등을 통해 심리적인 지지와 후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한국얀센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은 수제 양초와 립밤, 비누를 직접 만들었다. 또 장학생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도 동봉해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제작했다.

영업부 신입사원 박상우(25)씨는 "입사 후 장학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다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제약회사에서 관련된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척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 역시 "한국얀센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 신조로 갖고 있을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을 보듬고 돌보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트레킹·캠핑·스파·라이브공연 한번에!

제주신라호텔 '트램핑 상품'
'일석사조' 겨울여행에 제격

제주신라호텔이 초보 캠퍼들도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여행 '트램핑 상품'을 내놨다. 트램핑(Tramping)은 트레킹(Trekking)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다.

제주신라호텔의 트램핑은 오전 제주신라호텔 레저 전문직원인 G A O(Guest Activity Organizer)의 안내로 오름 트레킹, 올레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해 제주의 겨울 자연을 즐길 수 있다. 호텔에서 트레킹화·스틱·배낭 등을 대여할 수 있어 트레킹 준비를 못 했어도 문제 없다.

2시간 정도 트레킹 후 완벽하게 세팅된 텐트들이 펼쳐지고, 호텔 주방장들이 제주산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캠핑 요리를 준비하며 트램퍼들을 기다리고 있다.

트램핑장에 도착하면 제주산 감귤과 허브로 맛을 낸 따뜻한 와인으로 추위로 긴장된 몸을 풀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글루바인'이 제공된다. 이어 신라호텔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정통 프랑스식 어니언 수프가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단호박 영양밥, 제주산 흑돼지, 주방장이 직접 만든 홈메이드 소시지와 닭 요리, 각종 채소를 연잎과 소금어냄에 쌓아 오븐에 구운 서프라이즈 건강 메뉴가 등장한다.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사계절 야외 온수풀과 뜨끈한 자쿠지에서 문라이트 스위밍과 스파를 즐기고 야외 풀사이드에 마련된 핀란드 사우나에서 이국적인 제주의 밤을 감상할 수 있다.

윈터 트램핑 패키지(A타입, B타입 중 택 1)에는 본관 스탠다드 객실, 와인 파티 2인 입장권, 야외 온수풀&자쿠지 무료 이용,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2인 조식, 윈터 트레킹 2인이 포함된다.

B타입 선택 시에는 숲 속에 마련된 캠핑 런치 2인이 추가로 포함된다. 패키지 가격은 A타입 1박에 33만원부터, B타입 1박에 43만원부터(세금 봉사료 별도, 2인 기준). 예약 1588-1142

/[illegible]기자

거울아~동안 비결이 뭐니?

칙칙한 다크서클 환히 밝히고 들뜬 입술각질·팔자주름 없애줘야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속마음이다. 특히 한 해의 끝자락인 연말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생각에 여성들은 심란하기만 하다. 피부 전문가들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다면 눈가와 입가 케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CNP 차앤박화장품 피부연구소 박준우 연구원은 "인상을 칙칙하게 만드는 다크서클과 하얗게 일어난 입술 각질은 '노안'으로 보이게 하는 주범"이라며 "특히 눈과 입은 표정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 주름이 생기기 쉬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상을 어둡게 만드는 다크서클은 가리겠다고 컨실러를 덧발랐다가는 잔주름이 도드라져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뿐이다. 평소 아이크림이나 아이마스크를 사용해 눈가를 환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젤 타입의 CNP 하이드로겐 아이 리프팅 패치는 쿨링 효과로 부은 눈은 빠르게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가 뛰어난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눈가에 수분을 공급한다.

입술은 피지선이 없고 얇은 점막으로 덮여있어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술이 마르면 침을 바르는데 이런 습관은 오히려 건조함을 악화시킨다. 들뜬 각질을 정리해주는 바디버지 스킷 엑스폴리에이터는 올리브 오일 추출물을 함유해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준다.

입 주위로 깊게 패인 팔자주름도 관리 대상이다. '블록크림'이라고 불리는 스트라이벡틴-SD 인텐시브 콘센트레이트 포 컴플렉스는 3주 만에 팔자주름을 개선시킨다는 임상 자료를 보유한 고농축 크림이다. 이 밖에 잔주름·튼조 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서지원기자 sw@metroseoul.co.kr

연말에도 '쌩쌩' 김대리 뭘 먹길래…

매콤한 핫푸드 체온유지

본격적인 겨울철 추위가 다가왔다. 기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길어진 밤으로 인해 생체리듬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12월과 1월은 모임이 많아지면서 심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해진다. 국내 식음료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상품을 잘 활용하면 지친 몸과 마음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좋다.

◆매운맛 듬뿍~ 면역력 쑥쑥~

사람에게는 평균 체온 36.5~37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체온이 0.5~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체내 대사 과정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열을 올려주는 매콤한 '핫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죽 전문점 본죽은 겨울을 맞아 매콤한 죽 메뉴인 '신림봉죽'과 '낙지김치죽'을 선보였다. 신림봉죽은 얼큰한 짬뽕에 각종 해산물이 들어간 신개념 별미 죽 메뉴이다. 칼슘·타우린·비타민 등이 다량 함유된 굴·새우 등의 해산물을 넣어 맛은 물론 영양까지 더했다. 낙지김치죽에 들어간 낙지는 필수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추위에 약해진 기와 혈을 보충해준다.

뜨끈뜨끈한 차 혈액순환

◆생강 한잔 디저트 면역력 충전

아티제가 선보인 건강음료 '애플진저티'는 곱게 간 사과에 마누카꿀과 생강을 더해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겨울철 음료로 제격이다. 특히 생강차는 꾸준히 마셔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고 감기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카페베네는 겨울 신메뉴로 다

달콤한 단팥죽 영양보충

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포함된 건강 재료인 팥을 이용한 팥에동동 단팥죽 3종을 출시했다. 쫄깃한 새알심이 들어간 '순수 단팥죽'을 기본으로 젊은 고객들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고구마 무스가 조화된 '고구마 동동 단팥죽'과 찰도넛과 단팥이 어우러진 '찰도넛 동동 단팥죽' 등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됐다. 팥에동동 단팥죽은 100% 순수 국내산 팥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는 간편하게 열대과일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는 '망식이' 건과류 제품을 판매한다. 망식이 건망고는 필리핀산 망고를 그대로 말린 제품으로 항산화제로 알려진 베타카로틴, 황색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 체내 세포 손상을 막아줘 면역력 강화는 물론 겨울철 피부 미용에도 좋다.

/김학철기자 kimhc

'뮤즈' 송혜교 완판을 부탁해

제이에스티나 2014년 모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2014년 주얼리 컬렉션의 새로운 뮤즈로 송혜교(사진)를 선정하고, SS 시즌 광고 촬영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송혜교는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면서도 시크함을 가지고 있는 절제된 여운의 아름다움을 지닌 배우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가 사진을 찍고 전 파리 보그 편집장인 카린 로이펠트가 스타일리스트로 참여한 '더 리틀 블랙 재킷(The Little Black Jacket)'의 사진집에 세라 제시카 파커, 키얼스틴 던스트, 다코타 패닝 등과 함께 등장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제이에스티나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내년 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제이에스티나는 패션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인 송혜교를 모델로 선정해 패션 관계자들뿐 아니라 로만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지원기자

나이키 '에어맥스 2014' 시판

나이키는 뛰어난 쿠셔닝은 물론 통기성과 경량성까지 강화된 러닝화 '나이키 에어맥스 2014'를 새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발 전체를 감싸는 혁신적인 충격 흡수 시스템인 '맥스에어(Max Air)'를 적용, 최고의 쿠셔닝과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한다.

갑피 부분에는 초경량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를 적용해 통기성과 지지력은 높이고 전체적인 무게는 줄였다. 갑피의 측면에는 '엔지니어드 폼'을 삽입해 발 모양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지지력을 경험할 수 있다. 가격은 21만원대.

/정인영기자

타스타스 블로그 리뉴얼 행사

여성 영 캐주얼 브랜드 '타스 타스'는 오는 25일까지 자사의 공식 블로그(http://tassetasse13.blog.me)를 통해 '리뉴얼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타스 타스의 공식 블로그에서 서로 이웃 맺기를 신청한 뒤 이벤트 페이지를 스크랩한 인터넷주소(URL)를 댓글로 남기면 106인을 선정해 1등 1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자사 상품 교환권, 2등 2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 3등 3인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이 지급되며 4등 100명에게 엔제리너스 음료 교환권이 증정된다.

영국항공-엔제리너스 '크리스마스 이벤트'

영국항공은 에스프레소 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런던행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증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 '크리스마스 원더랜드 크리스마스를 영국에서 보낸다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엔제리너스커피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겨울 시즌 신제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이번 크리스마스를 영국에서 보낸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공약을 적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국항공은 가장 우수한 공약을 낸 1명에게 영국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인 '클럽월드'로 런던을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티켓 2장을 제공할 예정이며 1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엔제리너스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할 방침이다.

/유계풍기자 ryoo

"내 안의 도전의식 깨워준 작품"

뮤지컬 '디셈버' 주인공 김준수

뮤지컬 '천국의 눈물' '엘리자벳' '모차르트' 등을 통해 티켓 파워 1위의 뮤지컬배우로 자리잡은 JYJ 김준수(26)가 창작 뮤지컬로 돌아왔다. 고 김광석의 히트곡으로 만들어진 '디셈버'(16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하는 그는 "올 겨울에 가장 어울리는 뮤지컬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창작극 컴백 2011년에 선보인 '천국의 눈물' 후 2년 반 만의 창작극이다. 전에 인기상을 받을 당시(JYJ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공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무대에 서게 된 게 정말 감사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창작극에 한 번 더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말처럼 행동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 내 안에서 도전 의식도 꿈틀댔다.

고 김광석 김광석 선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음악과 가사를 쓸 수 있는지 감탄한다. 김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음악만으로라도 알고 싶었고, 그의 미발표곡을 처음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에 끌렸다.

생애 첫 연기 주크박스 뮤지컬이라서 처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성스루(노래로만 구성된 뮤지컬) 형식의 뮤지컬처럼 노래 위주일 줄 알았다. 나중에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인 것을 알고 사실 많이 당황했다. 연기도 처음인 데다 대사량까지 많아 걱정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연기를 배워 뮤지컬 스펙트럼을 넓혀보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동참했다.

장진 감독 연출자인 장진 감독님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함께하는 배우들에게 의지하면서 배우고 있다. 감독님이 스스로 자신이 연기를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정말 시범을 보여주면서 웬만한 배우 이상으로 연기를 잘해서 놀랐다. 그리고 연습할 때마다 노래와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다른 뮤지컬배우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

대학생 첫사랑에 빠진 순수한 대학생 지욱 역을 맡았다. 1992년 대학생 시절부터 공연연출가가 돼 20대 추억을 회상하는 40대까지 연기한다. 극중과 같은 낭만적인 학창 시절은 겪지 못했지만 오히려 생소해서 재미있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다. 별것 아닌 일로 화내거나 소박한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흥미롭다.

건강관리 공연 중에는 긴장해서인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편인데 끝날 때마다 일주일간은 많이 아프다. 이번엔 전작인 '모차르트'나 '엘리자벳'을 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커서 더 많이 아픈 것 같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서 게임하는 것이다. 이때가 유일하게 평범한 삶을 느끼는 순간이다. 술을 거의 못 해서 밖에 나가 놀 수가 없다.

뮤지컬 4년차 가수 활동을 하는 것도 행복한데 공연 때마다 좌석을 꽉꽉 채워줘서 감사하다. 운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진출 초기엔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엘리자벳'에서 죽음 역을 맡는다고 할 때도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정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했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전성기 내 앨범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가수는 그만둘지라도 뮤지컬은 계속하고 싶다. 인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지금까지만도 충분히 감사하다. 보통 뮤지컬배우의 전성기는 30~40대라고 한다. 앞으로 더 배우고 사랑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또 JYJ로 뭐와 무대에 설 때마다 뮤지컬배우로서도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처럼 밖에서도 사랑받는다면 뿌듯할 것 같다.

/박선영기자 [email partly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illegible]

복고 입은 티아라 화려한 컴백

타이틀곡 '나 어떡해' 선봬 "안무는 뮤지컬 보는 듯"

걸그룹 티아라(사진)가 중독성 강한 복고 코드를 덧입혀 화려하게 컴백했다.

'복고 퀸'으로 돌아온 티아라는 최근 음악 방송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리패키지 앨범 '어게인 1977'의 타이틀곡 '나 어떡해'는 멤버들의 천연덕스러운 표정 연기와 뮤지컬 안무 포인트가 눈길을 끈다.

6일 KBS2 뮤직뱅크 대기실에서 만난 효민은 "'나 어떡해'는 당시 대중에게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 샘플링보다는 우리에게 맞게 더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며 "안무도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뮤지컬 안무 구성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의상을 통일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2009년 데뷔해 어느덧 5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티아라는 주로 봄과 가을에 새로운 앨범을 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겨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소연은 "10월 '넘버나인'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앨범 무대 의상과 콘셉트를 준비했다. 이 때문에 컴백 시기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기를 늦추면 아깝고 당기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결정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국내 무대는 물론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티아라가 중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곡은 발표와 함께 중국 최대 뮤직비디오 사이트에서 한국 가수 중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지연은 "중국에서 불러주면 갈 거다. (웃음) 21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장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티아라 소속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고 중국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 어떡해'는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나 어떡해'를 샘플링해 재탄생된 곡이다.

/장병호기자 ysjeb@metroseoul.co.kr

star bag

임신 13주… 내년 6월 엄마

가수 장윤정이 엄마가 된다.

장윤정은 임신 13주째로 내년 6월 출산 예정이라고 소속사가 7일 밝혔다. 그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 가수와 방송 활동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선배 가수 남진과의 콘서트에서 남진이 장윤정에게 공개적으로 축하를 건네면서 알려졌다. 장윤정은 6월 도경완 KBS 아나운서와 결혼했다.

순수 매력 농촌아이들 화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 3'의 참가자 농촌아이들이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연천에 살고 있는 17세 동갑내기 친구들로 구성된 이들은 1일 방송된 2회에서 꾸밈없는 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웃음보를 터뜨리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무대 영상은 8일 오전 유튜브와 네이버 TV캐스트에서 각각 72만 건과 46만 건 총 118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히든싱어·불후의 명곡 우승

가수 휘성이 JTBC '히든싱어 2'와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우승을 싹쓸이했다.

그는 7일 밤 방송된 '히든싱어'에서 자신의 히트곡 '위드 미' '안 되나요' '가슴 시린 이야기'를 부르며 쟁쟁한 모창 능력자들과 대결을 펼친 결과 우승했다. 같은 날 방영된 '불후의 명곡'에서도 1962년 발표된 현미의 '밤안개'를 재해석한 무대로 1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방송 후 휘성의 과거 히트곡들이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재진입했다.

일렉 사운드로 관객 잡아

혼성 3인조 클래지콰이가 '그린 플러그드 레드 2013'에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7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50여 분 동안 3집 수록곡 '생의 한가운데' 와 히트곡 '러브 보이' '필 디스 나잇' 등을 불렀다. 보컬 알렉스와 호란은 연신 무대를 뛰어다니며 추운 겨울 페스티벌을 즐기려 온 관객들에게 화답했으며 DJ 클래지는 귀를 자극하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연출했다.

●시트콤급 며느리 오디션 ●남편 시험하려 납치 자작극

황당한 '왕가네 식구들'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MBC '오로라공주' 못지않은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전개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7일 방영된 29회는 최대세(이병준)가 자신의 아들 최상남(한주완)과 왕광박(이윤지·사진)의 결혼을 반대해 10여 명의 여성들을 놓고 며느리 오디션을 벌이는 모습 등 시트콤을 방불케 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또 괴한에게 납치된 왕호박(이태란)이 실은 자신을 향한 남편 허세달(오만석)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는 연어족 '캥거루족' 저렴드 권에 '학벌지상주의' 삼포세대 등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가족 문제를 다루겠다는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와는 한참히 동떨어진 전개다.

시청자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너무 비현실적이라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본다" "알바생이 대본을 쓴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배우들이 안쓰러울 정도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시청률은 여전히 높았다. 1일 자체 최고인 34.9%(닐슨코리아 전국 집계 기준)를 기록한 이 드라마는 7일 30.6%로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주말극 1위로 독주를 이어갔다. '막장' 논란이 뜨거워질수록 시청률이 상승한 '오로라공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다.

/탁진현기자 tak0427@

'아시아 대세 그룹' 엑소

中 음악 시상식 2관왕

초대형 신인 그룹 엑소(사진)가 국내에 이어 중국의 연말 음악 시상식에서도 정상에 섰다.

엑소는 6일 중국 베이징 엔민대 강당에서 열린 제6회 음악풍운방 신인성전 시상식에서 '2013 최고 그룹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 활약하는 엑소-M도 '2013 최고 인기 그룹상'을 차지했다.

음악풍운방 신인성전 시상식은 중국 유명 음악차트인 음악풍운방이 주최해 중국어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영향력 있는 음악 시상식이다.

엑소는 현지에서 높은 인기로 최고 그룹상을 수상했음은 물론,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엑소-M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최고 인기 그룹상을 수상해 시상식 최고상을 석권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올여름 음원·음반 시장을 싹쓸이했던 엑소는 겨울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12월의 기적'으로 국내 9개 음원차트와 해외 6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송소라기자 sune@

"음악·선행으로 치유하는 이승철도 의사"

고대 의대 명예교수로 초빙

가수 이승철(사진 오른쪽)이 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초빙됐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고려대 의대 의료진과 함께 봉사활동을 지원해 온 이승철은 5일 고려대 본관 유광사홀에서 명예교수 수여식에 참가한 뒤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강연에서 이승철은 현재 실천 중인 여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로 인한 사회 및 개인의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연을 펼쳐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의료 봉사활동 외에 4년째 아프리카 차드에 공연 수익금을 기부하며 학교 짓기 사업을 해오고 있고, 경북 김천 소년 교도소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합창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숨은 선행을 펼쳐왔다.

고려대 의과대학 한희철 학장은 "이승철은 우리와 같은 의사"라며 "우리는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고 이승철씨는 선행과 음악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미래를 치유하고 있다"고 명예교수 초빙 이유를 밝혔다.

/송소라기자

공룡, 이보다 더 리얼할순 없다

3D영화 '다이노소어' 최근 10년 발견 토대로 세밀한 작업 | 울음소리 등 감정 매트릭스 사용

영화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의 주인공 파치와 그의 단짝인 원시새 알렉스. 오른쪽은 영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룡 캐릭터들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가 웰메이드 에듀테인먼트 영화로 겨울 극장가에 주목받고 있다.

◆공룡에 대한 새로운 상식 녹아

다이노소어'는 포털사이트 네이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같은 시기 개봉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제치고 38.0%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영화는 공룡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이 밝혀졌던 19세기 초부터 100여 년간 이어온 관련 연구를 뒤집는 최근 10년 간의 발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라 폭넓은 연령층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작진은 공룡이 살았던 세계를 진짜처럼 생생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저명한 고생물학자들과 긴밀하게 작업했으며, 세밀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실제 연구와 조사를 거쳐 현존하는 공룡 영화 중 가장 사실성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화에는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깃털이 있는 공룡들이 발견되면서 이들이 현재는 새로 진화해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또 부리 길이만 2.5m에 달하는 익룡이 사실은 공룡이 아니라 파충류였다는 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날렵하고 포악한 공룡으로 고르고사우루스가 있었다는 것, 이밖에 2000개나 되는 공룡 에드몬토사우루스가 존재했다는 사실 등 공룡에 대한 새로운 상식들이 영화 속에 녹아있다.

영화의 자문을 맡은 고생물학자 스티븐 브루셋은 "스토리의 배경은 물론이고 주변 풍경, 동물들의 생활 모습까지 전부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을 합쳐 영화로 탄생시켰다"며 차원이 다른 공룡 영화를 예고했다.

◆파치의 위대한 리더 성장기 그려

'다이노소어'는 7000만 년 전 알래스카의 작은 공룡 파치가 흉악한 거대 공룡들의 위협과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용감하게 살아남아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제작진은 새와 포유류 등 여러 동물들의 생김새와 움직임, 울음소리 등을 관찰하고 분석해 '감정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완성했고 이를 토대로 캐릭터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배우 이광수가 주인공 파치의 목소리를 연기했고, 배한성을 비롯한 베테랑 성우들이 총출동해 완성도를 높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013
MORE THAN FEEL

홍명보 "러시아·알제리전에 승부수"

내년 브라질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오르려면 승점5 확보해야 안정권 ·1승 1무론 자력 진출 힘들어

2014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을 마친 축구대표팀이 2회 연속 16강 진출을 향한 전략 구상에 본격 돌입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숙제는 승점 5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대회인 남아공 월드컵에서 1승1무1패(승점 4점)로 16강에 진출하는 행운을 얻기는 했지만, 4점은 자력 진출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똑같이 1승1무1패를 기록하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 있다.

16강을 위한 안정권에 들려면 최소 1승2무(승점 5점)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물론 한 팀이 3전 전패를 하고 나머지 팀들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칠 경우 2승1패로 승점 6점을 따고도 탈락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지난 대회 같은 조에 속했던 아르헨티나처럼 한 팀이 3승을 거둘 경우 낮은 승점으로도 16강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H조 톱 시드인 벨기에와 마지막에 붙는 것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벨기에가 첫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다면 한국전에서는 다음 경기를 위한 페이스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세 경기 가운데 알제리전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기"라며 "전략적으로 볼 때 첫 두 경기에 승부를 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러시아·알제리 약점 뚜렷

첫 경기를 치르는 러시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본선에 오른 팀으로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다. 유럽 예선 조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본선에서 상대할 때 잉글랜드·프랑스·포르투갈 등 같은 포트의 유럽 강호들보다는 분명 수월한 상대다. 특히 세대 교체 시기를 맞아 전력이 하향세며 공격보다는 수비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다른 유럽 팀보다 해볼 만하다.

월드컵 3회 출전국인 알제리는 한 차례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이 필승을 기대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토고(2-0 승·2006년), 나이지리아(2-2 무·2010년) 등 아프리카 팀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벨기에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는 등 메이저 대회와 큰 인연이 없었던 전력은 분명 한국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8일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 있는 베이라 히우 경기장을 사전 답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대인배 김연아'

'올림픽 리허설' 200점대 우승··· 아사다에 판정승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은 김연아(23)의 우세 속에 다시 한 번 아사다 마오(23)와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김연아는 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끝난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새 프로그램을 공개해 명불허전의 기량을 펼쳐 우승을 차지했다. 아사다는 장소는 달랐지만 7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13~2014시즌 국제빙상경기 연맹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쇼트 프로그램 73.37점에 프리스케이팅 131.12점을 더해 총점 204.49점을 기록했다. 아사다는 쇼트 프로그램 72.36점, 프리스케이팅 131.66점으로 합계 204.02점을 거뒀다.

두 선수의 점수 차는 0.47점 차로 김연아가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다. 경기 규모와 심판이 다르지만 같은 날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직접 맞서진 않았지만 김연아가 1위자다운 압도적 실력을 과시한 반면 아사다는 두 번의 트리플 악셀 시도에 실패하며 목에 건 금메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성현기자 yuna@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우승한 김연아가 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갈라쇼를 마친 뒤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프로 데뷔 첫 승

2014 KLPGA 개막전 V

골프 신동 리디아 고(16·고보경)가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을 장식했다.

10월 프로로 전향한 리디아 고는 8일 대만 타이베이시 미라마르 골프장에서 열린 2014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스윙잉 스커츠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11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리디아 고는 이날 3언더파 69타,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1위를 기록했다. 리디아 고는 전날 2라운드까지 유소연에게 1타 뒤진 8언더파 136타로 2위를 기록했지만 이날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며 유소연을 따돌렸다.

프로 전향 후 두 번째 대회에 출전한 리디아 고는 이로써 프로 데뷔 첫 승을 KLPGA 투어에서 기록하며 우승 상금 15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챙겼다.

리디아 고가 8일 프로 데뷔 첫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반면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은 이날 이븐파를 기록하며 합계 8언더파 208타로 리디아 고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첫날 선두였던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로 단독 3위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다.

/김성현기자

손흥민 결승골… 시즌 7호

손세이셔널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이 시즌 7호 골을 터트리며 킬러 본능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8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벌어진 도르트문트와의 2013~2014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전반 18분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승점 3점을 추가한 손흥민의 레버쿠젠은 12승1무2패, 승점 37점으로 1위 바이에른 뮌헨(41점)과 승점차를 좁였다.

손흥민은 후반 37분 수비수 필립 볼샤이드와 교체됐다. /김성현기자

프로농구 전적 (8일)

팀					합계
동부	22	13	23	17	85
삼성	21	12	22	20	68
LG	15	17	18	19	69
SK	18	18	18	7	62
오리온스	18	25	16	25	84
모비스	18	20	20	18	74
우리은행	18	15	15	17	65
KDB생명	17	8	14	21	60

프로배구 전적 (8일)

홈			원정
우리카드	3	2	대한항공
한국전력	3	2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1	3	IBK기업은행
현대건설	1	3	기업은행

1억5000만 달러 이상? 추신수 이번주 FA대박 가능성

미국프로야구 특급 자유계약선수(FA)들이 속속 새 둥지를 찾으면서 추신수(31)의 대박 계약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폭스스포츠는 8일 추신수를 "대형 FA 도미노 현상의 다음 순서"라고 표현하며 "제코비 엘즈버리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떠나 뉴욕 양키스에 입단할 때 받은 7년 최대 1억5300만 달러(약 1618억원)에 버금가는 계약을 끌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시즌 FA 시장에서 엘즈버리·추신수와 함께 톱 3로 꼽힌 로빈슨 카노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10년간 2억4000만 달러(약 2539억원)에 계약한 것도 추신수의 대박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신수는 국내 귀국 직전이자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이 열리는 10~13일 전후로 새 팀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참여재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 여러분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제시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